【자유교회 소식】

1. 자유교회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을 살며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기를 꿈꾸는 교회입니다. 믿음의 삶을 통해 하나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갑시다.
2.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념하는 사순절기입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시기 바라며 사순절기 동안 계속되는 성찬예식에 기도로 준비하시고 성찬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3. 다음 주 예배 후에 3월 재정보고 및 선교구제사역을 위한 회의가 있겠습니다.
4. 우리교회 인터넷 홈페이지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www.jayoochurch.org입니다. 자유게시판에 홈페이지를 위한 건의사항을 올려주시면 더 좋은 홈페이지를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5. 우리교회에 맞는 예배처소를 위해서 기도 중에 있습니다. 비전과 사역을 공유할 수 있는 예배처소를 구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난주 헌금통계

십 일 조:	$350.00	
감사헌금:	$110.00	
주일헌금:	$4.00	
특별헌금:	$10.00	**합 계: $474.00**

중보기도 제목

- 장애우를 돕는 밀알선교회를 통해 많은 장애우들이 장애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 선원선교를 위해 헌신하는 사역자들을 복주시고 저들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이 선원들에게 아름답게 전달되게 하옵소서.
- 북한의 땅에도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굶주려 죽어가는 어린이들이 없게 하옵시고 이를 위해 애쓰는 사역자들을 안전하게 도와주옵소서.

【자유교회 Vision 소개】

- **자유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를 꿈꾸는 교회입니다. 모든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유일한 담임목자는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동역자입니다. 자유교회는 사람보다 예수님이 세상에 알려지길 원합니다. 교회의 행정과 운영에 있어서 때로는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식과 법을 고집할 것이며 실험할 것입니다.
- **자유교회는**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교회를 꿈꾸는 교회입니다. 성경에서 교회란 늘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라는 뜻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즉 교회란 건물이나 제도가 아니라 구별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교회가 부패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교회 건물이 노후했다는 뜻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인 성도가 교회답지 못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예배를 통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Imago Dei)을 회복하기 위해 힘쓸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된 우리의 모습을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줄 것입니다.
- **자유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하는 교회를 꿈꾸는 교회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명령은 교회가 지켜야할 지상최대의 명령입니다. 가깝게는 지역사회로부터 크게는 세계 각처에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 힘쓸 것입니다. 이를 위해 실제적으로 헌금의 50%를 선교와 구제 그리고 이웃과 지역을 섬기는 일을 위해 사용할 것입니다.
- **자유교회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는 교회를 꿈꾸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 받은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믿는 자에게는 자녀의 권세를 회복케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율법의 저주로부터의 자유, 모든 두려움과 불안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세상 권세와 문화에 좌우되는 성도가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기 위해 힘쓸 것입니다.

2007년 3월 25일 제34호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LIBERTY COMMUNITY
자 유 교 회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교회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하는 교회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는 교회

자유교회 Liberty Community Church

34617 8th Ave SW Federal Way, WA 98023
Tel (253)661-5436(fax), 227-1775
E-Mail: graceofjesus@comcast.net

주 일 예 배

오전11시 예배인도 이진우 목사

찬 양 슬픈 마음 있는 사람(91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93장) 다 같 이

조용한 기도 Prayer 함 께 서 서

찬 송 Hymn 44 함 께 서 서

기 도 Prayer 박종갑 장로

교 회 소 식 Announcement 인 도 자

성 경 마태복음 20:1-16 인 도 자

설 교 교회는 일하는 곳이 아니라 은혜받는 곳입니다. 이진우 목사

성 찬 초 대 Invitation of Communion 다 같 이

집례자: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주님의 성찬을 받기 위하여 나아오십시오.

다같이: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받기 위하여 겸손한 심령으로 나아갑니다.

집례자: 여러분의 마음을 깨끗하게 비우십시오.

다같이: 우리가 마음을 성결하게 비우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집례자: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몸을 버리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다같이: 우리가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께로 나갑니다.

집례자: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미합시다.

다같이: 할렐루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세상의 구세주이십니다.

참회의 찬송 Hymn 197 다 같 이

참회의 기도 Prayer of Repentance 다 같 이

하나님의 어린양이신 그리스도시여, 우리의 무지와 욕심을 용서하옵소서. 우리가 때로 주님의 크신 사랑과 자비를 잊어버리고 우리 마음대로 살았사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주의 사랑은 우리의 생명이오며, 주님의 은혜는 우리의 빛이오며,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양식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목숨을 주신 것같이 우리도 주님을 위해 생명을 드리오니,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신 앙 고 백 사 도 신 경 다 같 이

성만찬제정사 Proclamation of Communion 집 례 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내어 주시던 날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기도를 드리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해 내어 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드시고, 감사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 돌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성령임재기원 Anointing of Holy Spirit 다 같 이

집례자: 사랑의 주님, 거룩한 식탁에 성령으로 임재하사 이 성찬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사 이를 먹고 마시는 저희로 하여금 새로운 몸과 마음이 되어 온 세상을 변화시키게 하옵소서.

다같이: 주님 어서 오셔서 이를 이루소서.

집례자: 그리스도께서 최후 승리 속에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모두 천국 잔치에 참여할 때까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하소서.

다같이: 서로서로 하나가 되게 하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하나가 되게 하소서. 아멘

성 찬 분 급 Communion 다 같 이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며 이웃과 화목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 앞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여러분들을 이 거룩한 성찬에 초대합니다. 한 사람씩 앞으로 나오셔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떡과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기도 Prayer 집 례 자

영원하신 하나님, 성찬을 통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명의 양식과 성령의 능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고난을 기념하는 사순절기를 통해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피하지 않으시고 이기셨던 것처럼 고난에 도망하는 믿음이 아니라 고난과 싸워 이기는 믿음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과 봉헌 Hymn 410 다 같 이

축 도 Benediction 이진우 목사

■ 다음주 기도 : 서정길 권사

예 배 와 모 임 안 내

주일1부 예배	**오전 11시**
주일2부 예배	**오후 3시(예정)**
수요성경공부	**매수 오후7시(예정)**
가정교회예배	**매주 금요일(예정)**

교 회 를 섬 기 는 이 들

목회사역	**이진우 목사(Rev. Jin W. Lee)**
행정사역	**박종갑 장로 남관희 집사**
선교사역	**서정길 권사**
양육사역	**윤지호 집사**